

엑스원의 힘찬 날갯짓...2만 팬과 눈물의 데뷔 첫발

Mnet '프로듀스X101' 통해 탄생한 신인 보이그룹...정식 데뷔

데뷔 앨범 '비상:퀵 리프' 비상한다는 의미 · 대도약 이룬다 의미

"플라이 하이(Fly High) 엑스원!" Mnet '프로듀스X101'을 통해 탄생한 신인 보이그룹 엑스원(X1)이 '도약'을 시작했다.

엑스원은 지난 27일 오후 8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스카이돔에서 프리미어 쇼콘(쇼케이스 콘서트)을 개최하고 정식 데뷔했다. 엑스원의 첫 데뷔 앨범 '비상:퀵 리프'는 비상한다는 의미와 대도약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쇼콘 역시 마침내 데뷔라는 꿈을 이룬 이들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임과 동시에 성장:도약과 앞으로의 '비상'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지난 7월19일 '프로듀스X101' 종영 이후 한 달 여 시간이 흐른 후의 공식무대. 프로그램 방영 당시에는 짧은 연습 기간 때문에 실력 면에서 '즉진감'이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이번 쇼콘에서는 한 달의 짧은 시간이 무척하게 수준급의 무대 실력을 선보였다.

엑스원의 멤버가 되어 공식적으로

처음 팬들을 만난 이들은 벅찬 소감을 전했다. 특히 국내 보이그룹만이 채우는 규모의 공연장에서 데뷔를 했다는 점에 많은 감동을 받은 모습.

그들 빅톤으로 활동하다 엑스원으로 재데뷔한 리더 한승우는 "원인(팬클럽 명) 여러분이 저희의 날개가 되어 달라"며 공연을 시작해, 마비지에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룹 유니크에 이어 솔로로 활동하다 엑스원이 된 조승연도 "어제 이곳에서 리허설을 했는데 이렇게 큰 공연장을 보고 걱정도 했었다"며 "사랑하는 원이이 우리의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다"라고 말했다.

'꽤남' 매력으로 나날이 팬들을 늘리고 있는 강민희도 "멋진 선배들이 선 무대 아닌가. 저희가 복이 넘치게 이 곳에 서게 돼서 영광이고 원이이 후회없이 무대를 보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쇼콘은 '프로듀스X101'에서 미처 보여지지 못한 멤버들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엑스원은 1994년생(한승우)부터 2004년생(남도환) 등 열 살 차이가 나는 멤버들의 나이대 구성, '프듀'에서 보여준 상반된 이미지로 인해 이들이 한 그룹으로 어떻게 어우러질지도 관심 포인트였다.

이들은 '프듀'에서 보여준 콘셉트와는 다른 이미지도 도전하면서 팬들을 즐겁게 했다. 에켄데 섹시, 카리스마 위주의 무대를 선보였던 한승우 조승연이 소년미 넘치는 '이빠이빠'를, 귀여운 매력의 '막내라인'인 송형준 손동표가 '움직여'나 '유갓잇' 무대를 할 땐 2만 객석이 열광했다.

마지막으로 선보인 신곡 '플래시'는 하우스와 퓨처트랩이 접목된 EDM 장르의 곡으로, 비상을 꿈꾸는 엑스원의 탄생과 포부를 알리며 각 멤버들의 개성과 다채로운 음색을 보여주는 구성, 화려한 퍼포먼스를 위한 장면 전환이 돋보인다. 11명이 하나가 됐을 때야 빛을 발하는 퍼포먼스 대형 등 난이도 높은 무대를 완성



도 있게 그려내며 환호성을 이끌어 냈다.

엑스원은 동시기 출발하는 다른 신인그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팬덤을 안고 데뷔했다.

고척돔을 채운 팬덤, 더불어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시작이 마냥 '꽃길'이지 만은 않다. 엑스원이 탄생한 '프듀'가 투표수 조작, 공정성 시비에 휘말

려 있기 때문. 역대급 데뷔 규모만큼, 잠재적 악재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번 출발에 대한 여러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엑스원이 어떻게 풀어갈지 시선이 모인다.

광주MBC '핑크피쉬', 방송대상 지역교양TV부문 수상

홍어를 전라도 대표 소울푸드...차별에 저항 재해석



오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이다.

지역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로 변질된 홍어를 사용해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 의미를 담았다.

광주MBC가 제작한 '핑크피쉬' 기획 김민호, 연출 백재훈·최선영 프로그램이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지역교양TV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핑크피쉬는 전라도를 비하하는 단어로 폄하되고 있는 '홍어'가 전라도를 대표하는 소울푸드이자 차별과 혐

박찬일, 박준우, 남성렬 등 스타셰프들이 우리나라처럼 홍어를 사혀 먹는 아이슬란드와 홍어요리를 대중화한 뉴욕에서 음식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기도 했다. 심사위원회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는 수작으로 보였다. 음식으로 보는 차별을 다룬 내용에도 아이슬란드와 뉴욕을 넘나드는 스케일, 그러면서 음식 안에 함유된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읽어냈다"며 "생태, 지역성, 음식이라는 키워드를 동원한 핑크피쉬는 음식 기호와 지역과 관련된 상징적인 핑크피쉬를 글로벌하게 확장시켜 의미의 변형을 시도하는 작품"으로 평가했다.

올해 한국방송대상에는 전국 지상파 방송사에서 출품된 272편이 경합을 벌였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총 25편의 작품과 20명의 방송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오후 3시부터 서울 SBS 프리즘터에서 열리며 SBS-TV를 통해 생방송된다.

앞서 핑크피쉬는 광주전남PD연합회 작품상, 한국PD대상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주MBC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핑크피쉬 7편을 제작해 총 10편을 방송할 계획이다.

선미, '날라리'로 8개 차트 1위 올킬 "사랑 감사"

5연속 흥행 음원 파워 입증

가수 선미가 컴백과 동시에 음원 사이트들 '퍼펙트 올킬' 시키며 대한민국 대표 여성 솔로 아티스트다운 저력을 과시했다.

선미의 '날라리'는 28일 오전 8시 기준 국내 음원사이트 멜론, 지니, 벅스, 엠넷, 네이버뮤직, 윌레, 몽키3, 소리바다 등 총 8개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전날 오후 6시 발표된 새 싱글 '날라리'는 공개되자마자 최상위권으로 진입해 발매 4시간 만에 8개 음원차트 '차트 올킬'에 성공했다. 발매 반나절이 지난 현재까지도 음원 사이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선미는 '가시나'를 시작으로 '주인공', '사이렌', '누아르', '날라리'까지 5연속 흥행을 이끌어 강력한 음원 파워를 입증했다.

선미는 소속사 메이커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어떻게 매번 이런 감사

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저를 믿고 사랑해주는 분들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미는 음원 아니라뿐만 뮤직비디오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자연스러운 선미의 표정 연기와 카리스마 넘치는 군무, 화려한 영상미가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는 평이다.

신곡 '날라리'는 지난 3월 진행된 북미와 멕시코 투어 중에 영감을 얻어 작업한 선미의 자작곡이다. 곡 전반을 주도하는 댄스홀(Dance-hall)과 라틴(Latin) 풍의 이국적인 사운드 위로 거침없이 쏟아지는 가사가 인상적인 '날라리'는 강렬하게 인트로를 압도하는 댄스소 가락을 전면에 내세워 한국만의 바이브(Vibe)를 믹스 매치한 곡이다.

댄스소는 연주자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는 특별한 악기이다. 작은 몸체



로 다른 모든 악기를 압도하는 존재감과 연주자에 따라 음색 자체가 시그니처가 되는 댄스소에서 곡의 정체성을 발견한 선미는 댄스소를 달리 부르는 말인 '날라리'로 제목을 정했다. 댄스소를 부르는 또다른 말인 '날라리'를 '난 Naughty', 'Captain', '날라' 등의 가사말로 다채롭게 변형해 유니크한 매력을 더했다.

뉴스1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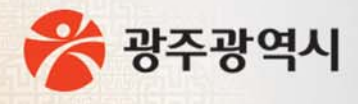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